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보도일시	2012. 4. 30(월) 17:30		
배포일시	2012. 4. 27(금) 14:00	담당부서	장기전략국 전략기획과
담당과장	한 훈 (2150-4910)	담당자	심현우 서기관 (2150-4911) 정규삼 사무관 (2150-4912)

제목: 중장기전략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1. 회의 개요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30(월) 16:00 정부중앙청사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 ‘글로벌 트렌드와 향후 정책과제’,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계획’, ‘장기 재정전망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정부위원(9명)과 민간위원(11명), 삼성연, LG연, 조세연 등 싱크탱크가 참석하였음

< 참석 민간위원 >

남영숙(이화여대 교수)	엄영숙(전북대 교수)	김경수(성균관대 교수)
김종수(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지룡(문화평론가)	안상훈(서울대 교수)
이원복(덕성여대 석좌교수)	정재승(KAIST 교수)	최재천(이화여대 교수)
현오석(KDI 원장)	롤랜드빌링어(맥킨지)	

□ 금일 회의에서는 민간위원장으로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교수가 민간위원간 호선으로 선출되었음

* 베스트&스테디셀러인 “먼 나라 이웃 나라”를 통해 세계 각국의 역사와 문화 등을 만화라는 형식으로 쉽게 전달한 “지식 크리에이터”

□ 또한 금일 회의에는 짐 오닐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회장이 영상회의로 참석하여 “세계 속 대한민국의 지위”를 주제로 발표하고, 위원들과 글로벌 트렌드와 중장기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였음

2. 안건 주요 내용

[1] 글로벌 트렌드와 향후 정책과제

□ 금일 회의에서는 KDI,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맥킨지가 함께 연구한 「글로벌 트렌드와 향후 정책과제 - 함께 준비하는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하여」가 발표되었으며,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세부내용은 별첨1 참고)

□ 글로벌 미래 트렌드는 크게 5가지로 제시

- ① (개도국 인구 증가와 고령화 사회의 가속) 세계인구가 '10년 69억명 → '40년 88억명으로 증가하고, 65세 인구 비중도 7.6%에서 14.2%로 증가
- ② (중국을 위시한 신흥국의 부상) 신흥국들이 '40년까지 글로벌 경제성장을 주도하면서, 중국은 '20년대 후반~'30년대 초반 세계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
- ③ (기후 변화와 에너지 고갈의 위협)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경제성장으로 세계 에너지 수요가 지속 증가('35년 현 수준의 1.4배)함에 따라 온실가스 증가로 지구 온난화 지속
- ④ (디지털 혁명이 몰고 올 스마트 세상의 변화) 2차 IT 디지털 혁명으로 IT 융합이 전산업·사회 인프라로 확산되고, BT·NT 등 여타 신기술 개발 경쟁도 가속화
- ⑤ (중산층의 위기와 고용구조의 변화) 글로벌화·기술별화로 인하여 고용구조가 고기능 인력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범용 기술 위주의 중산층과의 소득격차 확대

□ 이에 따른 향후 정책방향은 크게 3가지로 제시

① 「성장하는 미래」

- 과학기술 혁신,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등 미래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창의적 글로벌 인재를 양성

② 「함께하는 미래」

-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를 구축하고, 소통과 참여를 통한 사회자본을 확충하며, 함께 진화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생태계를 조성

③ 「준비하는 미래」

-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대비,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 등 미래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

□ 이러한 중장기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전제

- i) 1회성 작업이 아니라 지속 추진될 수 있는 실행체계 확립
- ii) 정부, 민간 싱크탱크, 글로벌컨설팅 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업체제 구축
- iii) 부분적, 단편적 시각을 벗어나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분석과 대비
- iv) Future Literacy 확대, 국민의견 수렴창구 마련 등 국민여망을 반영

□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오늘 제시된 미래 트렌드와 정책방향 등과 관련하여,
①성장, ②사회통합, ③미래위험 3대 분야의 10개* 작업반을 운영하여
구체적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

* 성 장 : 신인구전략, 미래인재 양성, 신흥국 성장잠재력, R&D

사회통합 : 사회자본, 노동시장, 대·중소기업

미래위험 : 고령사회 대응, 기후/에너지, 수자원

- 작업반이 준비한 내용은 다음달 회의부터 순차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고,
9월중 분야별 작업반의 내용을 종합하여 중장기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
- 이와 함께 각 부처가 수립하는 3년 이상 視界를 가진 280여개 이상의
중장기 계획 중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등 구조적 이슈와 연관되는 계획**을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논의함으로써,
- 부처별 계획간 정합성을 높이고,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하도록 할 계획

[2] 짐 오닐 발표 내용

- 짐 오닐 회장은 금일 중장기전략위원회와의 영상회의에서 한국이 골드만삭스의 「성장잠재력지수(Growth Environment Scores)*」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4위를 차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 변화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가 이와 같은 성공을 이끈 핵심요인이라고 언급
- * 골드만삭스 리서치에서 약 190개 국가를 대상으로 거시적인 경제의 안전성, 기술력, 인적자원 등 지속적인 성장잠재력을 위한 18가지 주요 변수를 근거로 산출해서 매년 발표하며, '11년 기준으로 1위 싱가포르, 2위 노르웨이, 3위 홍콩
- 많은 국가들이 중국 등 BRICs 국가들의 浮上을 불안해하며, 자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반면,
 - 한국은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자국시장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이러한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총평



기획재정부 대변인

(1) 미래 대비의 필요성

- 자크 아탈리가 그의 저서 “미래의 물결”에서 “지금 바로 이 순간, 2050년의 세계가 어떠한 모습일지 결정되며, 2100년의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준비되고 있다”고 한 것처럼,
 -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
- 부단히 앞으로의 경제·사회적 변화를 예측하고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
 -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미래에 위험이 닥쳤을 때, “임경굴정(臨耕掘井)*”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임
 - * 논을 갈 때가 되어서야 널 물이 없어서 우물을 판다는 뜻으로, 미리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가 일이 임박해서야 허둥지둥 서두름을 이르는 말
- 우리가 맞닥뜨릴 도전과제들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등과 같은 중장기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구조적 이슈들이라는 점에서,
 - 우리 경제의 구조적 과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하는 것은 특정한 시점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정권말이라고 해서 미룰 일도 아님
 - 특히, 영국·핀란드·호주·중국 등 주요국이 이미 미래 환경변화를 분석하여 국가적 대응전략을 모색 중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음

<참고> 주요국 미래보고서 현황

- 영 국 : 정기적으로 미래환경을 예측하고 분야별 전략보고서를 작성
- 핀란드 : 정부에서 미래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 호 주 : 예산법에 근거하여 세대간 보고서를 5년 주기로 발간
- 중 국 : WB와 국무원 공동으로 중국의 장기전략 방향을 제시한 China 2030 보고서 발간

- 오늘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출범이 우리 정부의 미래 대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

(2)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

-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각 부처 장관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모여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논의하는** 場이 될 것
 -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우리 경제·사회의 지도나 나침반을 넘어 「**네비게이터**」로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
 - 과거에 여행을 하려면 지도나 나침반이면 충분했겠지만,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상황에서는 방향 뿐만 아니라 교통량까지 분석해주는 네비게이터가 보다 요긴한 수단인 것처럼,
 - 중장기전략위원회도 **중장기적인 트렌드와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을 국민들께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Asset
Management

성장시장(및 미국)의 성장잠재력지수 (Growth Environment Scores)

	Korea	China	Brazil	Mexico	Russia	Turkey	Indonesia	India	United States
Headline	7.7	5.4	5.4	5.0	4.9	4.9	4.5	3.9	7.0
Rule of Law	7.0	4.3	5.0	3.9	3.4	5.2	3.7	4.9	8.2
Corruption	5.8	3.8	5.1	4.3	2.9	5.0	3.5	4.0	7.5
Political Stability	5.9	4.5	4.3	3.1	2.5	2.4	2.7	3.1	6.8
Government Deficit	5.8	3.8	3.6	2.8	3.2	3.6	4.4	0.8	0.0
Inflation	10.0	10.0	9.7	9.9	9.2	8.7	9.7	7.8	9.7
External Debt	..	9.3	8.6	8.4	7.5	6.3	7.5	8.5	..
GFCF	5.7	9.1	3.7	4.0	4.4	3.7	6.4	5.9	2.9
Openness	4.7	3.6	1.8	3.7	2.3	2.6	2.8	2.7	2.0
Life Expectancy	9.1	7.6	7.6	8.3	6.7	7.7	6.7	6.0	8.6
Schooling	9.5	6.5	8.0	6.7	7.3	7.1	6.1	4.7	8.9
Mobiles	9.8	5.6	9.0	7.5	10.0	8.7	6.7	4.5	8.9
Computers	10.0	0.7	2.1	1.9	1.7	0.8	0.3	0.4	10.0
Internet	10.0	3.3	4.5	3.0	3.4	4.2	1.0	0.6	9.0
Servers	5.1	0.0	0.2	0.1	0.1	0.4	0.0	0.0	10.0
Patents	10.0	1.6	0.8	0.8	1.8	0.3	0.1	0.2	9.9
R and D	8.0	3.7	2.7	0.9	2.6	2.1	0.2	2.0	7.1
Cost of Business	8.5	9.6	9.3	8.8	9.7	8.3	7.9	4.4	9.9
Urbanization	9.1	5.0	9.6	8.6	8.1	7.7	6.0	3.3	9.1

출처: GS Global ECS Research

본 정보는 일반적인 시장 활동, 산업 또는 섹터별 추세, 기타 전반적인 경제, 시장 또는 정치 여건에 관한 것으로 리서치 또는 투자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종목 혹은 증권에 대한 언급은 종목 혹은 증권의 배수, 매도, 보유 및 투자를 권유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C)2012 Goldman Sachs. All rights reserved. 72266.OTHER.OTU

* GFCF :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총 고정 자본 형성)